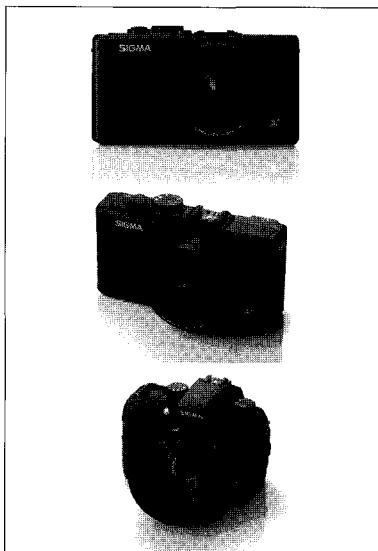


‘전문 마케팅 컴퍼니’ 향한 힘찬 비상

사진영상장비 전문기업 세기P&C(주)

세기P&C(대표 · 이봉훈, www.saeki.co.kr)는 단순히 사진영상 관련 브랜드를 판매하는 회사로 머무는 것을 거부한다. ‘고객 감동’을 마케팅의 기치로 삼는 만큼 철저한 애프터서비스는 기본이고 사진문화를 창출해내고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강좌, 마케팅 공모전, 소년원 내 포토스쿨 지원 등 사진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진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세기P&C를 들여다보았다. 취재/박지연 기자



▶ 주력제품인 시그마의 카메라 제품

“제품판매를 통한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진문화를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봉훈 세기P&C사장의 이러한 바람은 서울소년원 등에 디지털 카메라 등 사진장비와 현상시설 지원, 이들 학교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강좌, 마케팅 공모전 등으로 이어지며 사진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세기P&C가 이처럼 사진문화의 선봉에 서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회사명에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P&C는 포토(Photo)와 컬처(Culture)를 의미한다. 1977년 세기양행으로 시작되어 1988년 세기판매로 법인을 설립, 2008년 2월에 지금의 회사이름으로 바꾼 후,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봉훈 사장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사진문화 발전의 초석이 되자는 것이 회사 설립 이념”이라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고객이 가장 좋아해주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소박한 바람을 밝혔다.

세기P&C에서는 세계적인 카메라와 렌즈 브랜드인 시그마, 삼각대에서는 맨프로토와 짓조, 카메라 가방에서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카타, 빌링햄을 공급하고 있다. 조명분야의 엘링크룸, 필름 카메라 분야의 지나, 일포드 필름, 그 외에 비디오장비, 잉크젯미디어 등도 공급하고 있다. 이중 DSLR과 미러리스 시장에 맞춰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시그마의 카메라 제품이 회사의 주력제품이다. 세기P&C측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시그마의 특화된 SD, DP시리즈의 경우 마니아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세기P&C의 강점은 사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진과 관련한 모든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봉훈 사장은 “사진관련 제품들은 카메라를 중심으로 렌즈 및 삼각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조명과 페이퍼, 장비를 실어 이동하는 가방에 이르기까지, 사진에서 한 가지 제품은 또 다른 제품과 연결고리를 가진다”며 “사진제품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광범위한 제품 구비와 서비스를 갖춘 회사는 국내에서 세기P&C가 유일하다”고 자부한다.

현재는 사진관련 제품에 국한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품목제한을 두지 않는 전문적인 ‘마케팅 컴퍼니’라고.

그야말로 현재로서는 그저 “꿈”이라고 말하는 이 봉훈 사장. 그러나 꿈을 앞당기기 위해 현재 세기P&C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준비과정으로 여기는 그는 뭘 하든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일처리, 꼼꼼한 사후 관리를 통해 내로라하는 마케팅 전문기업을 제치고 “세기P&C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길 때까지, 세계적인 ‘마케팅 컴퍼니’의 꿈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세기P&C를 매출 500억 원대의 강소기업으로 만든 발판이 됐는지 모른다.

세기P&C는 내년 상반기 중에 또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키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충무로 매장 뒤편에 마련된 부지에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신사옥을 지어 국내 사진인들을 위한 사진명소로 만드는 것이다.

“신사옥에는 4개 층 매장을 중심으로 매장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특별한 복합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고객들의 휴식공간도 만들고 기존 포토스쿨이 비좁았는데 80여 평의 널찍한 공간으로 만들어 사진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이 세기포토스쿨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반인들은 물론, 소년원생을 위한 지원에도 꾸준히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고객이 가장 좋아 주는 기업이 되고픈 바람대로 꿈의 신사옥이 완공되는 날, 사진인들도 세기P&C로 인해 더욱 행복해질 것 같다.



▶ 지난 11월 2일 미평여자학교(청주소년원) 사진교실 현판식 광경



▶ 사진의 저변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세기포토스쿨에서의 사진교육 광경

인터뷰/이봉훈 대표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인 보다 명예로운 기업인이 되고파”

군 전역 후 1년 반 만에 맨 주먹으로 사진재료상을 시작, 사진업계에서만 34년 잔뼈가 굵은 이봉훈 사장은 요즘 사진업계의 ‘키다리 아저씨’로도 통한다. 무일푼으로 사업을 일



▶이봉훈 대표

구며 힘든 청년기를 보냈던 만큼 어두운 길에 잘못 들어선 청소년들을 지나칠 수 없었던 그는 서울 고봉중고(서울소년원)에 이어 미평여자학교(청주소년원)에도 사진장비 지원은 물론, 사진교실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희망과 꿈을 후원하고 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소년원 특강을 마다않는 그는 “나로 인해 단 한명이라도 순화하는 이가 생긴다면 그것만 큼 보람되고 명예로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말한다. 실제로 그가 학생들 특강을 맡고 사진교육을 실시한 이후 원생들의 재범률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한다. 현재 법무부 소년보호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이봉훈 사장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Q 소년원내 사진교실을 진행하게 된 계기와 그간 성과는?

A 처음 고봉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은 지난 2007년 고봉학교 선생님이자 법무부 프르미방송의 프로듀서(PD)인 박인원 씨가 학교로 이관된 중고 카메라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우리 매장에 찾아온 것이 인연이 됐다. 당시 수리 불가 판정이 나온 장비를 새 것으로 교체해주고 월 1회 세기P&C에서 주최하는 사진교실로 고봉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교육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외부와의 접촉이 자유롭지 못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사진기능사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들이 사진가로서의 꿈을 갖고 재미있게 교육에 열중하는 모습에 힘입어 올해 5월 3일에는 학교 안에 사진특별반을 만들어 매

주 화요일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 퇴소한 학생들 중 몇 명이 사진 관련 학과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고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학생도 있다. 이런 결과에 흐뭇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시켜 나갈 생각이다. 많은 학생들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나아가 건강한 자아상 확립을 통해 훌륭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Q 인생경영에서 개인적인 철학을 말씀해주신다면.

A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군에서 막 제대 후 잘 곳도 먹을 것도 없어 고생할 때여서 우선은 돈을 벌어 헐벗고 굶주리는 것에서 탈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조그만 사진재료상이지만 사업을 시작한 후 이 업계에서 1위를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기고, 비록 지금 당장 1위라고 당당히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생각은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으로 인생 목표가 설정됐다. 한 업계에 몸담은 이상,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의 명예, 회사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 나의 인생철학이 되었다. 이를 위해 타에 모범이 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문화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제 살 깎아먹기 식의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국내 사진 업계 모두가 발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국내 사진산업과 관련한 저변이 확대되고 시장 파이를 넓힐 수 있도록 협회가 구심점이 돼 주었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카메라가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아직 사치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다른 품목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결국 업계에서 카드사용을 기피하는 불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작용까지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협회가 나서서 정부에 건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다면 업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